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2021 SUMMER CONFERENCE

On-Line

세션별 Webinar 진행

2021 하계연합 학술대회

2021. 08. 20 금

pm2:00~5:30

주최



韓國保險學會



대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Korea Risk Management Society



한국연금학회
Korean Pension Association



한국금융법학회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IAK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목 차

인사말씀	4
2021 하계연합학술대회 발표목록	5
초청특강	9
세션별 논문발표	35
세션 I 보험	37
세션 II 리스크 관리	45
세션 III 보험계리	51
세션 IV 보험법	57
세션 V 연금 & 규제제도	63
세션 VI Next Insurance	71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77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계연합학술대회를 총 7개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매년 여름, 보험 관련 학회 및 보험연구원과 하계연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는 학술이론의 발전적 토대가 되고 있고, 보험 관련 연구학자들의 원활한 공감과 소통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학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지 못하게 된 점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온라인상 으로나마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 24개의 논문 발표가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가자 분들께서는 각 세션들의 발표주제를 참조하시어 발표를 들으시고 토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조강연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강성 부사장님께서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비즈니스의 미래 소개"라는 주제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보험학자들 및 보험업계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 및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학술대회가 우리 보험학의 발전과 보험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험학회 회장 **장덕조**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김재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최병규**

한국연금학회 회장 **윤석명**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윤성승**

보험연구원 **안철경**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이재민**



2021 하계연합학술대회 발표목록

○ 전체진행 : 남상욱 교수(서원대학교,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개회 및 초청특강	
ZOOM: https://zoom.us/j/9098484354 (회의 ID: 909 848 4354)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보험학회 회장)
14:10~14:50	초청특강 강 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CRO)
14:50~15:00	질의응답
15:00~15:10	Coffee Break
15:10~17:10	세션별 논문발표
17:10~17:30	연구윤리교육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회)
17:30	폐회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 보험	
사회: 허 연 교수 (중앙대학교)	
ZOOM: https://cau.zom.us/j/6941353919?pwd=aXZMS1FMN0phNmRpYUhyR0x3MS9mQT09	
회의 ID: 694 135 3919	
15:10~15:30	IFRS 17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 및 보험손익 평가와 시사점 발표 : 김창기(고려대)·김창현(고려대)
15:30~15:50	The Comparative Statics of Self-protection with Endogenous Saving in a Two-argument Utility Model 발표: 김경선(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홍지민(숭실대)
15:50~16:10	고지의무 수동화를 위한 선결 과제의 검토 발표: 조경원(보험개발원)·맹수석(충남대)
16:10~16:30	Social Security Expansion and Economic Issues in a Heterogeneous Economy 발표: 손지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향석(성균관대)
16:30~16:50	농업 선진국 지위 격상이 정책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발표: 최창희(보험연구원)·이승준(보험연구원)

세션 II | 리스크 관리

사회: 이경희 교수 (상명대학교)

ZOOM: <https://us02web.zoom.us/j/84326227665?pwd=YVBuSXR1M1J3UkNNUHE4TIVHWFg1QT09>

회의 ID: 843 2622 7665 (암호: 969225)

15:10~15:30	가계부채 보유와 보장보험 가입 간 관계분석 발표: 강성호(보험연구원)·이경희(상명대)
15:30~15:50	Pension Risk Taking and Stock Price Crash Risk 발표: 박희진(부산대)·노정희(국민연금연구원)
15:50~16:10	보험설계사 보수구조가 불완전판매에 미친 영향 발표: 정원석(보험연구원)·이경희(상명대)
16:10~16:30	실손보험과 병원의 도덕적 해이 발표: 박소정(서울대)·정찬욱(DB손보)

세션 III | 보험계리

사회: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ZOOM: <https://us02web.zoom.us/j/87614329158?pwd=dU84US9GSjdjNXcwQis2bnF4eUIFQT09>

회의 ID: 876 1432 9158 (암호: 7440)

15:10~15:30	Insurer's incentive via varying coefficient 발표: 이민하(성균관대 박사과정)·이항석(성균관대)·하홍준(St. Joseph Univ.)
15:30~15:50	Neural Credibility 발표: 안재윤(이화여대)·Rosy Oh(KAIST)·Yang Lu(Cocordia Univ.)·Dan Zhu(Monash Univ.)·Kyungbae Park(Kangwon National Univ.)
15:50~16:10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료의 조화 발표: 이항석(성균관대)·송성주(고려대)·이가은(성균관대 박사과정)
16:10~16:30	보험 승환해지와 일반해지의 특성 비교 발표: 김현경(한국신용정보원)·백철(한국신용정보원)

세션 IV | 보험법

사회: 박세민 교수 (고려대학교)

ZOOM: <https://us02web.zoom.us/j/87614329158?pwd=dU84US9GSjdjNXcwQis2bnF4eUIFQT09>

회의 ID: 449 139 9076 (암호: 3445)

15:10~15:30	빅테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영역의 진출 발표: 김시홍(금융결제원)
15:30~15:50	인슈어테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발표: 박수영(전북대)
15:50~16:10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발표: 강현구(법무법인 광장)

세션 V | 연금 & 규제제도

사회: 이태호 박사 (ESG 경제연구소)

ZOOM: <https://us02web.zoom.us/j/87437200893?pwd=MWdod2U4WFVJdDJsQUZnMi9KMMy9vUT09>

회의 ID: 874 3720 0893 (암호: 014444)

15:10~15:30	60대 고령자의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1954년생을 중심으로- 발표: 최경진(주택금융연구원)·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15:30~15:50	현행 공제보험 관련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이승준(보험연구원)·최창희(보험연구원)
15:50~16:1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발표: 양기진(전북대)
16:10~16:30	연금, 기관투자자, 경제민주적 자본시장들의 법적·제도적 조성 발표: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세션 VI | Next Insurance

사회: 이태열 박사 (보험연구원)

ZOOM: <https://us02web.zoom.us/j/81613410341?pwd=MUdlcjJaUnMzSUF4K01VaFZxWCsxUT09>

회의 ID: 816 1341 0341 (암호: 577107)

15:10~15:30	보험산업과 ESG 발표: 변혜원(보험연구원)
15:30~15:50	위험의 진화와 보험의 역할 발표: 정성희(보험연구원)
15:50~16:10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발표: 손재희(보험연구원)
16:10~16:30	인구구조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 발표: 김세중(보험연구원)

폐회

초청특강

강 성 CRO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비즈니스의 미래 소개

2021. 8. 2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CRO 강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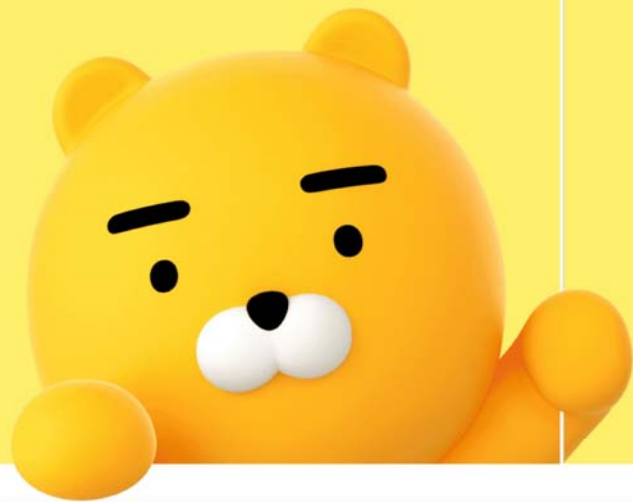
A large, dark clock face is centered on a black background. The time 12:23:36 is displayed in large, bold, yellow digits across the center of the clock face. The clock hands are visible, and the overall aesthetic is modern and digital.

카카오의 성장과 금융 비즈니스 확장



카카오뱅크

B
kakao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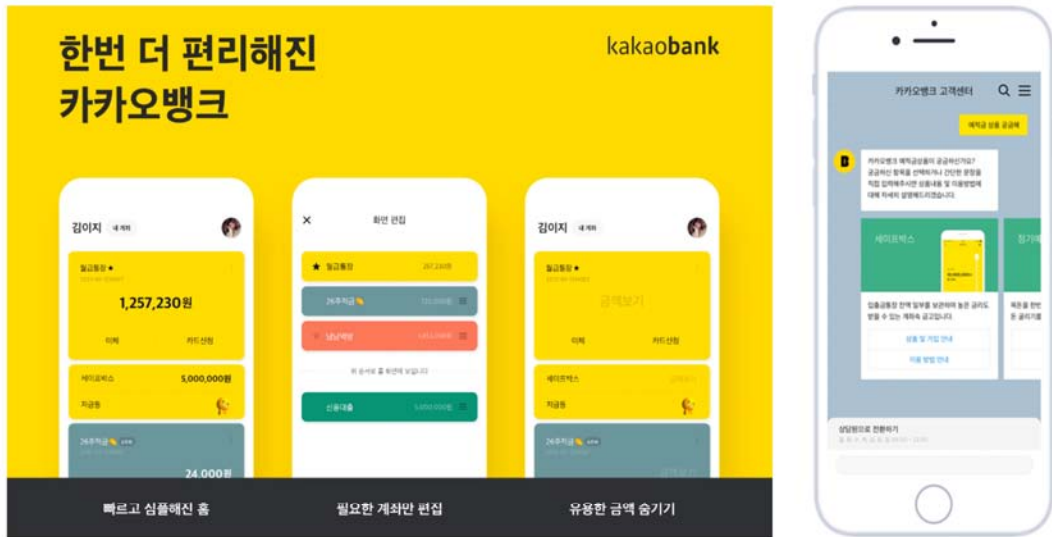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구분	내 용
법인명	카카오뱅크 (KakaoBank Corp. 또는 kakaobank)
대표이사	윤호영 대표이사
주주사 (주식수 기준)	카카오(31.7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7.10%), 한국투자금융지주(4.67%), 국민은행(9.35%), 넷마블(3.74%), SGI 서울보증보험(3.74%), 우정사업본부(3.74%), 이베이(3.74%), Skyblue(텐센트, 3.74%), TPG Capital(2.61%), Anchor Equity Partners(2.61%), Yes24(1.87%), 기타(1.32%)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5동 5층
임직원	이사 9명(사내 2명, 사외 6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1,023명

2017년 7월 출범 (2021년 6월 말 기준)
 가입고객: 114만 => 1,671만
 수신고: 5조 => 26조
 여신: 3조 => 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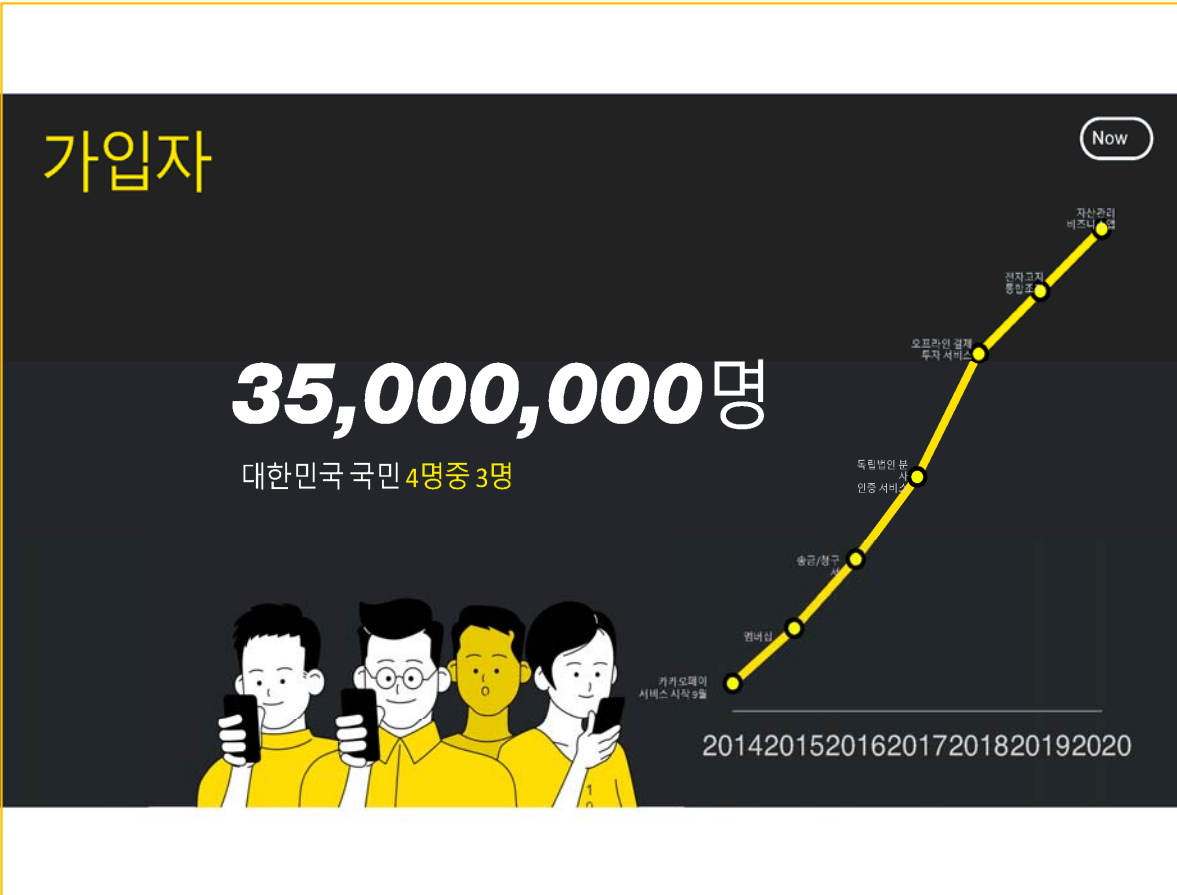
구분	2017-07-31	2017-09-30	2017-12-31	2018-03-31
전체 이용자	114	397	493	568
계좌 고객	114	397	493	567
수신	5,153	33,312	50,483	71,286
여신	3,627	26,595	46,218	58,565
구분	2018-06-30	2018-09-30	2018-12-31	2019-03-31
전체 이용자	619	685	796	968
계좌 고객	618	683	769	891
수신	83,645	93,587	108,116	148,971
여신	68,060	77,886	90,826	96,665
구분	2019-06-30	2019-09-30	2019-12-31	2020-03-31
전체 이용자	1,077	1,172	1,245	1,325
계좌 고객	986	1,069	1,128	1,201
수신	175,735	198,819	207,119	213,430
여신	113,276	135,802	148,803	167,475
구분	2020-06-30	2020-09-30	2020-12-31	2021-03-31
전체 이용자	1,380	1,440	1,544	1,615
계좌 고객	1,254	1,310	1,360	1,416
수신	223,419	229,775	235,393	253,910
여신	173,452	187,304	203,133	216,050
구분	2021-04-30	2021-05-31	2021-06-31	
전체 이용자	1,635	1,653	1,671	
계좌 고객	1,432	1,447	1,461	
수신	249,249	260,690	266,259	
여신	232,075	227,203	231,265	

카카오뱅크: 이용자 중심의 UI/UX와 편의성



카카오페이







결제 effortless system

멤버십

리워드

영수증

쿠폰

가계부

결제

Now

결제완료
15,000원

받은 혜택의 가치 **1,520원**

- 받은 알 확인하기 >
- 할인 2 1,520원 v
- 멤버십 자동적립 완료 >
- 현금영수증 완료 >

주문금액 16,520원
결제수단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일시 2020.06.30 15:45:21
상호명 CU편교발리동리워점
카카오페이 승인번호 1234567890
상장주문번호 394253842433245

5 충전할당 후, 편교페이머니 카카오페이뱅크

확인

투자 다양한 투자 옵션

투자

P2P

펀드

주식

자문/일임

한번투자

자동투자

알투자

잔돈투자

자산관리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Upcoming

사용자의 금융 전체 현황을
통합적으로 한 눈에 조회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

Tech

차세대 신용평점모델

Upcoming

비금융 소셜 데이터 <small>검색, 쇼핑, 스팸지수</small>	<div style="font-size: 2em; color: yellow; border: 2px solid yellow;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padding-right: 10px;"> 카카오페이 데이터 <small>거래(송금, 결제), 청구서, 인증, ...</smal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카카오페이 신용평가 모형 </div> </div>	소액여신	개인화 가격결정
카카오페이 데이터 <small>거래(송금, 결제), 청구서, 인증, ...</small>		보험 범위/한도	배송비 면제
KYC <small>개인, 법인</small>		보증금 면제	리스크 관리
신용등급조회/대출 중계 서비스 <small>신용등급, 대출승인여부, 상환이력, ...</small>			
마이데이터 <small>자산정보, 보험, 연금, ...</small>			
외부소셜데이터			
출입국정보			

Tech

Upcoming

지능형 리스크관리(FDS 아키텍처)
 * ML: 클러스터링, 확률모델, 유사도 예측,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

    graph LR
      TX((TX)) <--> RDS[Real-time Data Stream]
      RDS <--> RAE[Real-time Analytic Engine]
      RAE <--> DE[Decision Engine]
      ETL((ETL)) --> BD[(Batch Data)]
      BD --> AE[Analytic Engine]
      AE --> UP[(User Profile)]
      DE --> UP
      TX --> UP
    
```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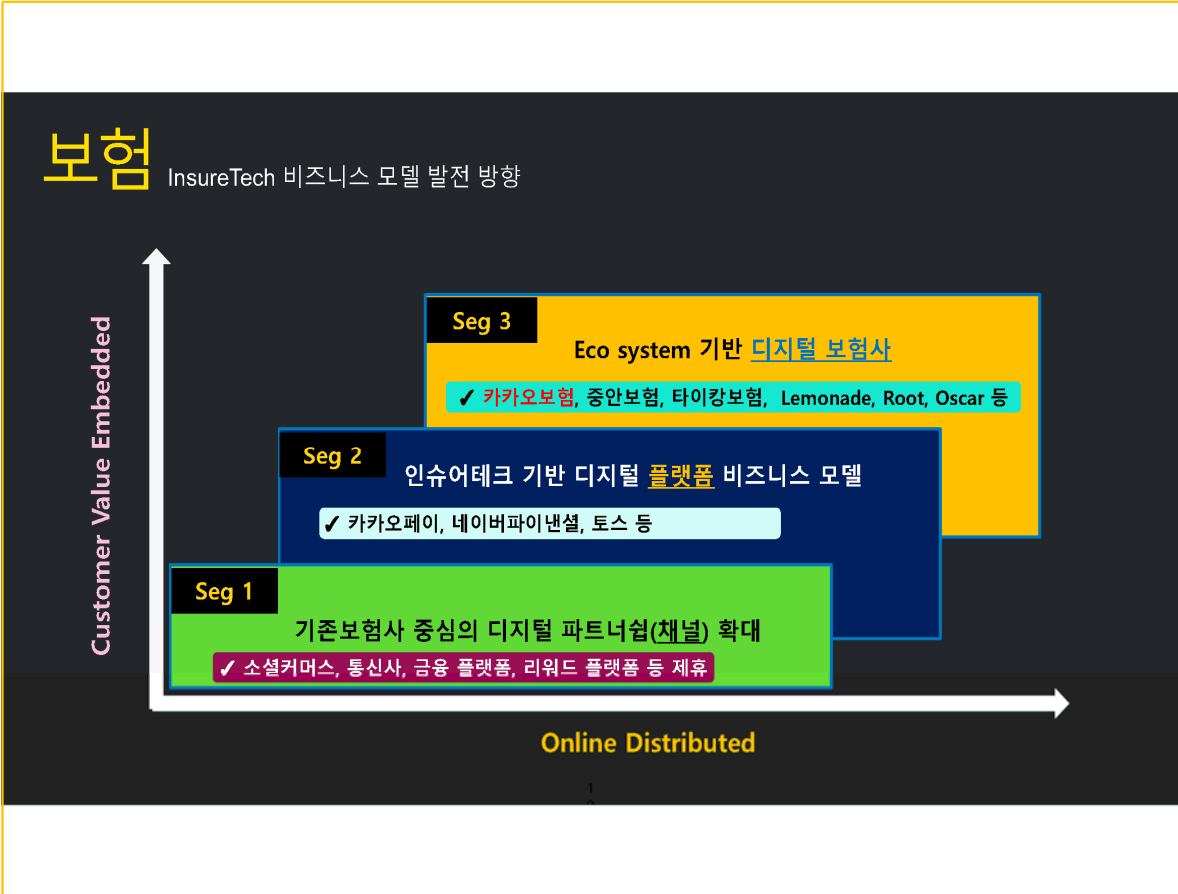
InsureTech 트렌드

ICT*와 보험의 결합

InsureTech와 헬스케어의 결합

‘보험, 헬스케어가 미래다(이코노미스트, 2021.7.26)’

- 1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20.12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예) 신한라이프 홈트레이닝 모바일앱 하우핏 등
- 2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21.6월)
(예) KB손보 하반기 내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 등
- 3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 근거 마련('21.6월)
(예) '21.7.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 획득
- 4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 및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 영위 허용
- 5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절차 간소화 및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예 :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 10만원 → 20만원)



보험

카카오보험 사업 추진 방향

카카오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 및 Successful story를 기반으로 3rd Party와 협업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손쉽고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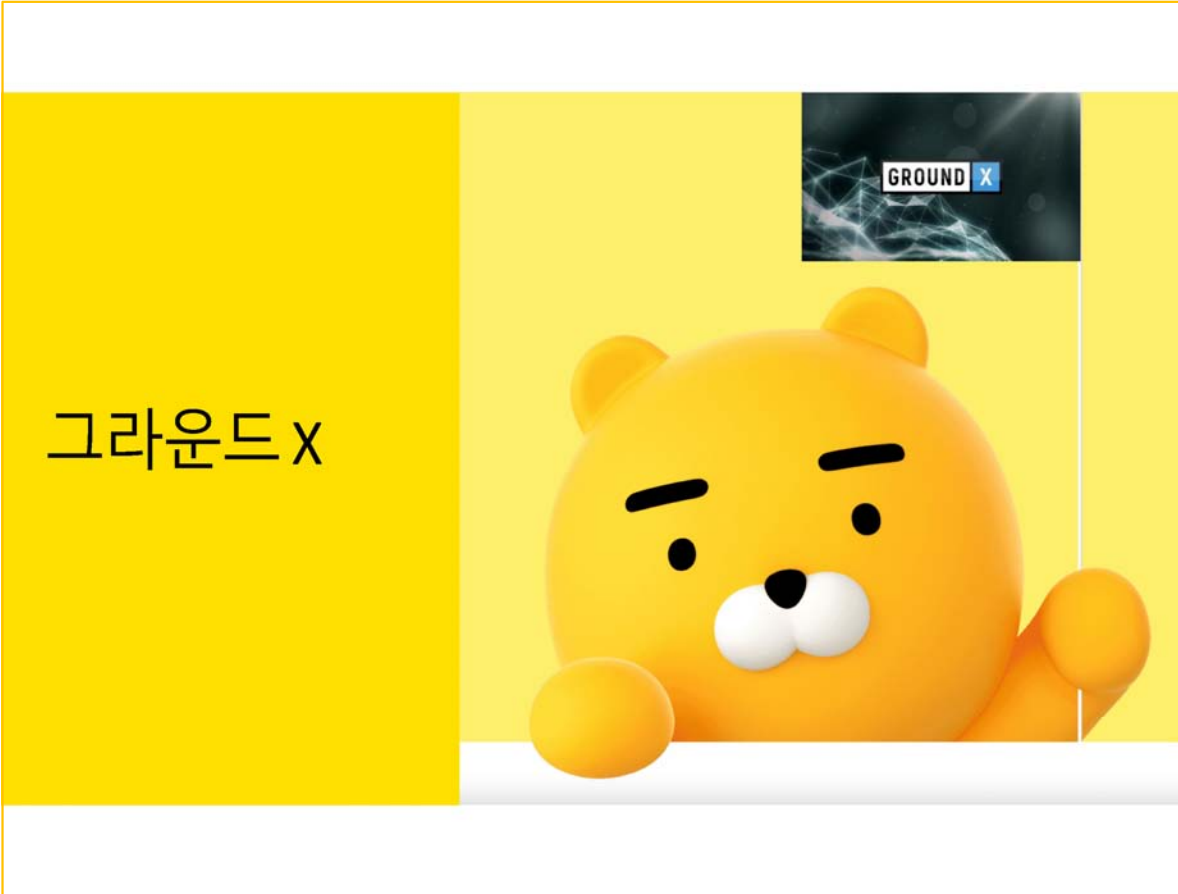
시장진입 초기

- ◆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공동체 플랫폼을 통한 생활밀착형 상품 중심 Line-up 구축
- ◆ 보험을 가입하는 느낌이 아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생활금융 서비스에 멤버십 같은 케어 + 서비스로 생활의 안심을 제공

시장기반 구축

- ◆ 카카오 공동체 외 외부 플랫폼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 개발/공급 (예 : 통신사, e-commerce 등)
- ◆ 카카오보험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상품, 서비스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손쉽고 간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

지향점 (InsureTech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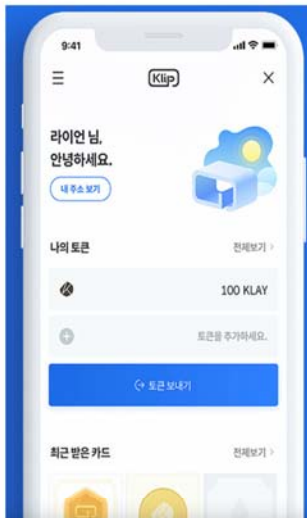
GROUND X: 클레이튼과 클립



GROUND X: 클레이튼과 클립



GROUND X: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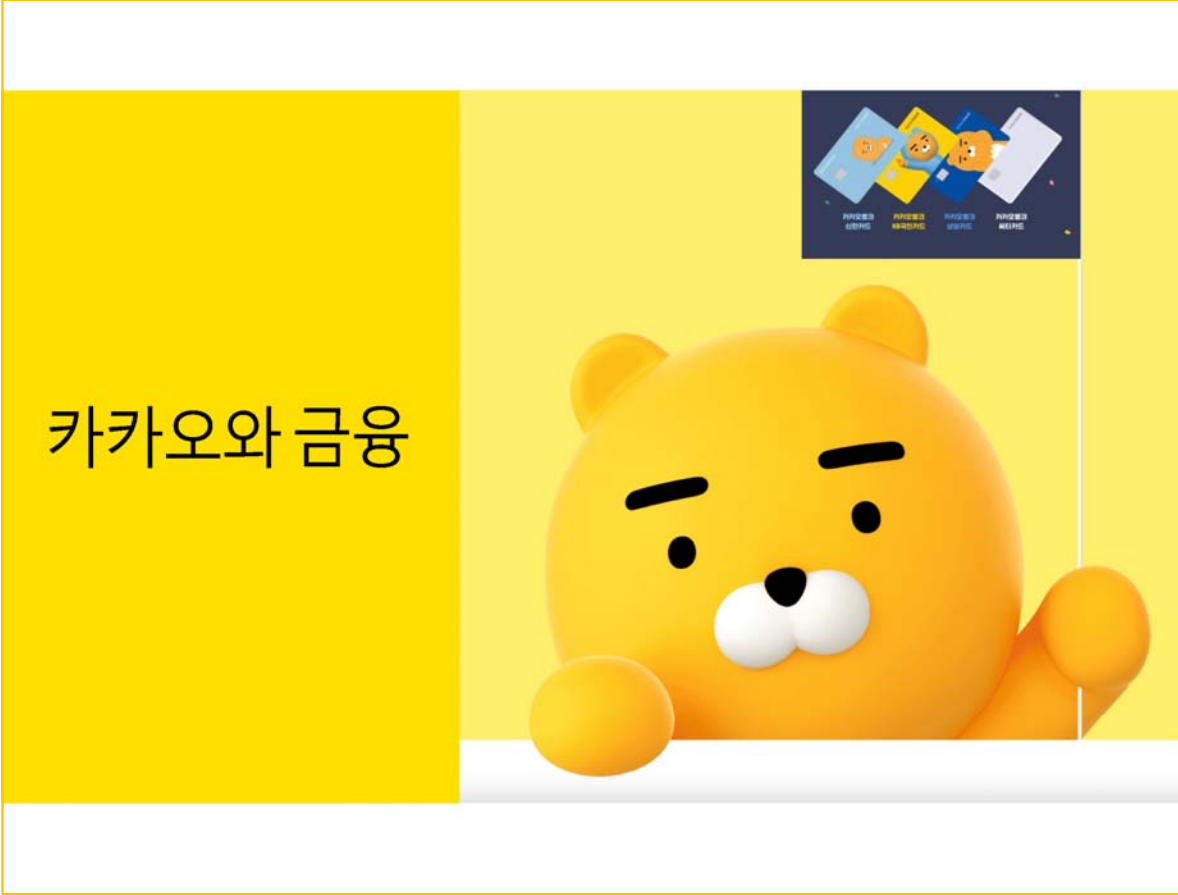
KLIP: DIGITAL ASSET WALLET

클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지갑이 여러 사용자를 결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클립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계 앱에서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적인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용역제외나 가상자산을 담지 못하는 일반적인 지갑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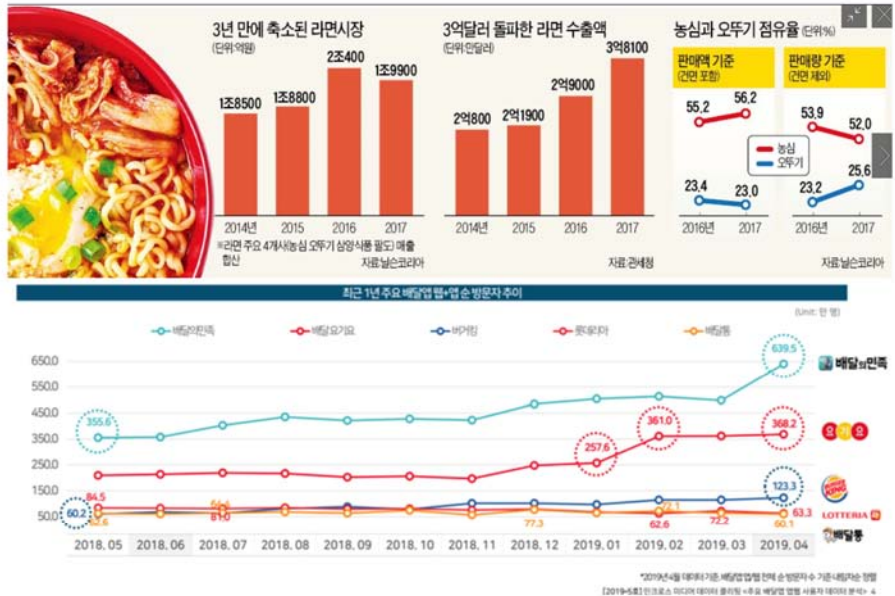
또한 소셜, 게임, 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특화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거나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클립은 클레이튼™을 포함해 총 11종의 클레이튼 기반 토큰인 KCT(KLAY COIN), KLAY, KLAYM, KLAYD, KLAYE, KLAYF, KLAYG, KLAYH, KLAYI, KLAYJ, KLAYK를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속성이 대개 불가능한 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를 지원합니다.

- 쉬운 사용성**
 - 수수료 100% 무료
 - 카카오톡 친구 목록 기반의 간편한 전송 경험
 - 모바일 앱 및 이체만으로도 빠른 전송 속도
- 높은 보안성**
 - 자체 개발한 키 관리 시스템 (KMS KEY MANAGEMENT SYSTEM) 기술로, 사용자의 보안 키를 암호화해 안전 보관
- 광범위한 확장성**
 - 직접 사용자도 NFT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KLIP PARTNERS 서비스 제공





카카오는 왜 금융? 경계의 붕괴



카카오는 왜 금융? 플랫폼의 확장

Grab

Income opportunities for driver- and delivery-partners

TRANSPORT → **FOOD** → **DELIVERY**

Connects 6 million partners to 95+ million consumer base

The most-used mobile wallet across the region.

MOBILE WALLET

REWARDS
Close to 600 GrabRewards merchant-partners enjoy more business from first-time and repeat customers

FINANCIAL SERVICES
Partners can grow their business quickly by tapping on Grab's consumer base, payment technology and loyalty programme

Financial support and product for gig economy

Live life seamlessly with one mobile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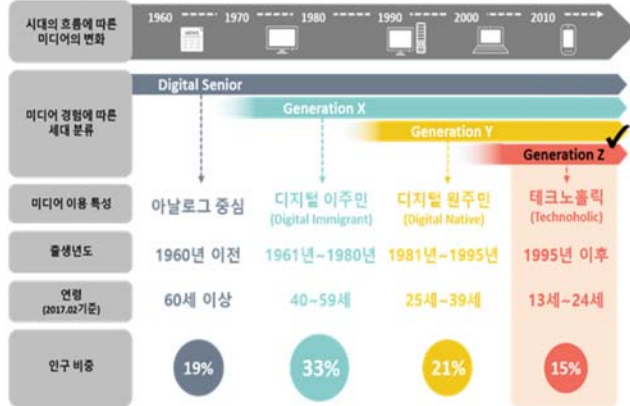
카카오는 왜 금융? 디지털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

초지능	초연결	초유연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p>Super Intelligence 인공지능</p>	<p>Hyper Connected 연결</p>	<p>Cloud Native 클라우드</p>	<p>Data Driven 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 Data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최적화된 자율적 의사 결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사물, 제품, 서비스 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연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큰 생태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기업 IT로 표준화되어 연계/통합/확장 용이 개발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개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경영 의사 결정 영역의 지속적 확대 예상

카카오는 왜 금융? MZ세대(Mobile Native Generation)의 대두

미디어 경험에 따른 세대별 특징



1. 기술에 대한 친숙함 - 그리고 의존

2. 리뷰 경제, social proof

3. 즉각적인 만족, 현재 편향(present bias)



카카오는 왜 금융? Digital Contact의 시대



카카오는 왜 금융? 핀테크 vs 테크핀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Bill Gates

핀테크...

- 효율성, 편리성
- Disaggregation에서 unbundling으로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산업 경계의 붕괴
 - Payer에서 Payvidor로
 - MGA, 핀테크 플랫폼의 등장
- 데이터 중심, 생태계의 형성
 - Wealth management, health care, auto management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이용자를 위한 혁신



카카오의 혁신 노력

카카오뱅크 : 새로운 사용자 경험

- 사용자 편리성 중심의 **편리한 로그인 및 인증**
- 즉시 실행 가능한 신규 대출 상품 모델 기반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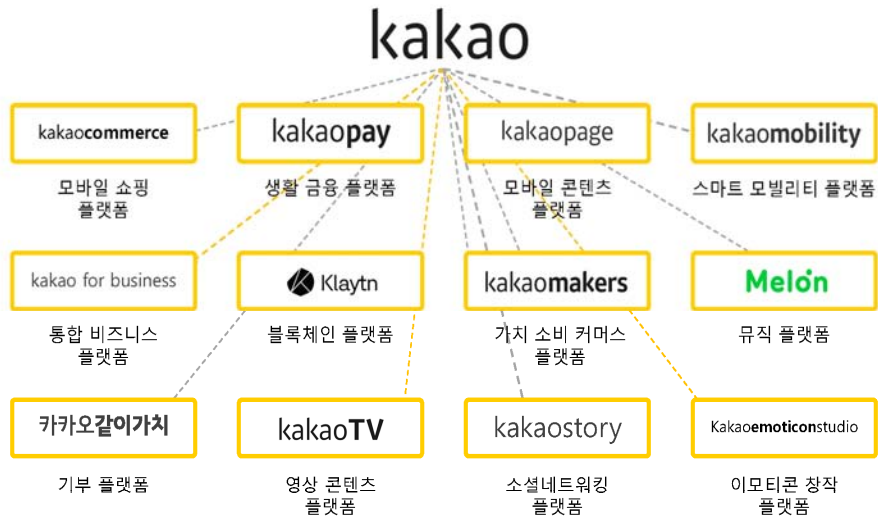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 : 새로운 가치 창출

- 고객의 **정확한 위치 기반**의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
- 기사님의 선호 목적지 **매칭**을 통한 Win-Win 가치 창출

카카오커머스 : 새로운 사업 기회

- 가격 민감도가 낮은 특별한 **이벤트 중심 시장 공략**
-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의 경계 없는 구매 혁신**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의 결합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Business

지속적 Spin-off
적극적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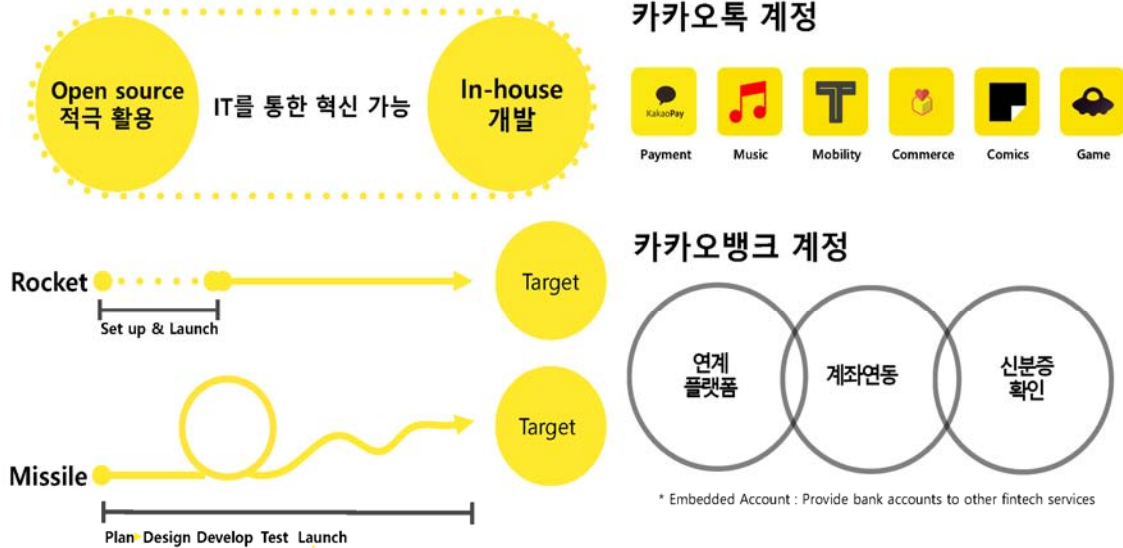


Talent

고용 창업자 (Employment Entrepreneur)
개발자 출신의 사업가 발굴 육성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IT 개발 방법론과 계정 연결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일하는 방식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kakao
 카카오 (14.2%)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

순위	2004년	2012년	2020년
1	삼성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2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삼성전자
3	LG 전자	대한항공	네이버
4	유한 김벌리	CJ 제일제당	CJ ENM
5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인크루트 X 알바콜 선정, 2020년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대학생 1,045명 대상 (20.06.02 ~ 05)

Why not? If Kakao Enterprise, ()

당연한 것들에 대한 도전, 카카오스러운 생각에 대한 기대



- 자기주도적인 태도
- 당연하게 보지 않는 것
-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는 노력

2020 상반기 일하기 좋은 IT 기업(잡플래닛, 2020/10)

순위	기업명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akaoenterprise
2	구글코리아 Google
3	카카오페이 KakaoPay
4	네이버 NAVER
5	S&M세콤 SK Telecom
6	아마존웹서비스 amazon
7	보에잉소프트웍스 boeingsoftware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조직 문화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지상민씨.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그는 리스크를 담당하는 행커다. 사무실에서의 킥보드 이동이 카카오뱅크의 속도 경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최정동 기자]



카카오뱅크의 최고경영진 자리는 직원들과 다르지 않았다. 왼쪽부터 이용우 대표, 김주원 이사회 의장, 윤호영 대표. [최정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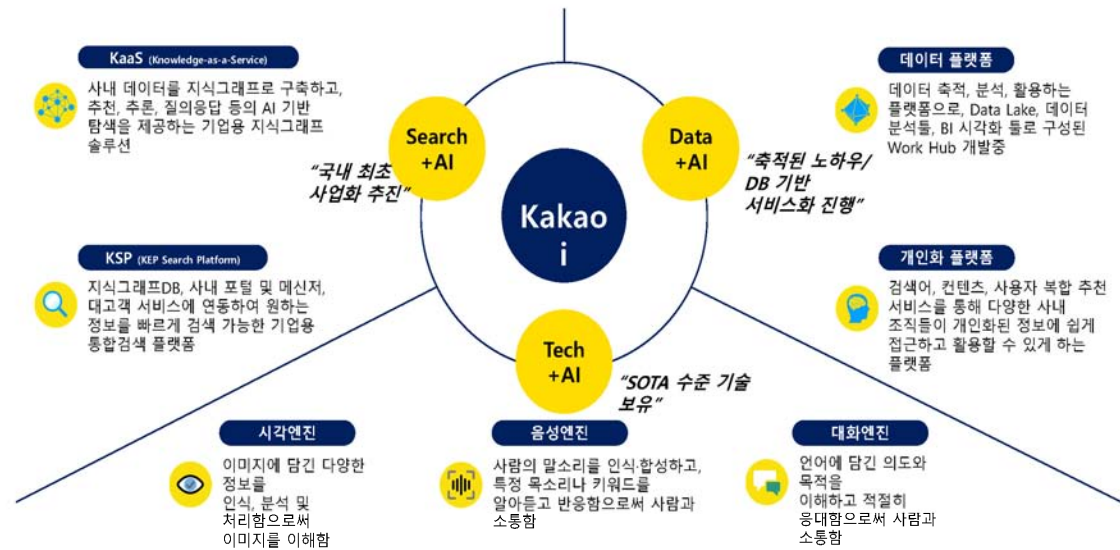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기발함과 친근감 결합

KAKAO FRIENDS

RYAN	APEACH	TUBE	CON	MUZI	FRODO	NEO	JAY-G
							
#갈기없는숫사자 #자유를동경하는 왕위계승자	#약동복숭아 #유전자변이	#미운오리새끼친척 #작은발콤플렉스	#정체불명어 #신비주의	#토끼아닌단무지 #최고무끄럼쟁이	#부자집도시개 #출신콤플렉스(믹스견..?)	#새침한고양이 #알고보면가발	#비밀요원두더쥐 #어린감수성

모든 캐릭터가 저마다의 열등감 / 콤플렉스와 비밀을 가지고 있음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AI(Kakao i)의 활용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봇을 통한 Hyper Conne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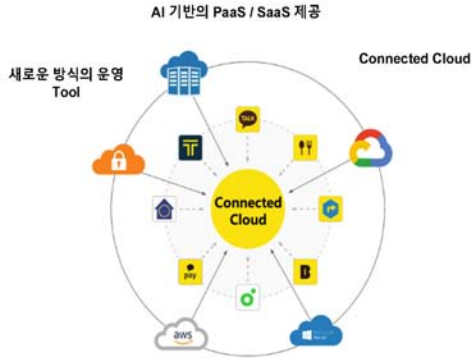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클라우드(Kakao i Cloud) 활용

Kakao i Cloud

기업의 복잡한 인프라 관리와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akao i Connected Cloud Solution' 제공

- ✓ 2023년 목표로 4천억 원 투입하여 카카오 데이터센터 도입
- ✓ KEP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빅데이터-AI-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인프라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글로벌 자본의 활용

카카오 지분율	카카오모빌리티 69.3%	카카오페이지 63.5%	카카오페이 56.1%	카카오게임즈 58.9%	카카오엔 78.2%	카카오뱅크 33.5%
파트너십						
투자당시 기업가치 (단위: 조원)	2017년 6월 1.6	2019년 7월 1.2	2020년 7월 1.1	2018년 2월 0.8	2020년 3월 1.7	자본금 1.8
투자금액 (단위: 억원)	5,000	1,250 2016년 12월 240 2019년 7월	2,300 2017년 2월 1,150 2020년 7월	1,400	2,100	
현재 시장 평가 가치	5조원+	9조원	9조 7천억원	3조 2천억원	2조원	10-20조원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새로운 IT 트렌드 도입

새로운 트렌드 발생

새로운 니즈 발생

기술적 진보에 따른 진입 비용 감소



(COVID-19로 인해) 물리적 시공간 제약 극복에 대한 니즈가 강화됨

통신과 그래픽 성능 향상	인터랙티브 제작 툴의 발전	AR/VR 관련 디바이스 진보
 <p>5G/클라우드 진보</p>	 <p>• 기존 게임 제작 엔진인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의 높은 활용성 제고</p>	 <p>•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가격, 무게, 어지럼증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진행중 • 페이스북이 선보인 확장현실(XR) 헤드셋 '오culus 퀘스트2'가 대표적으로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 판매 • 신경을 통해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지능형 클릭 • 사용자의 평소 습성, 외부 환경을 파악,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AR로 제공</p>

카카오가 바라보는 금융: B2ME의 시대

“나만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B2ME)”

Wealthy는 전문PB와 Advanced AI로 밀착관리

뱅킹 외 데이터를 연계한 AI 기반의 확장된 서비스 제공

투자 관리 +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세무 부동산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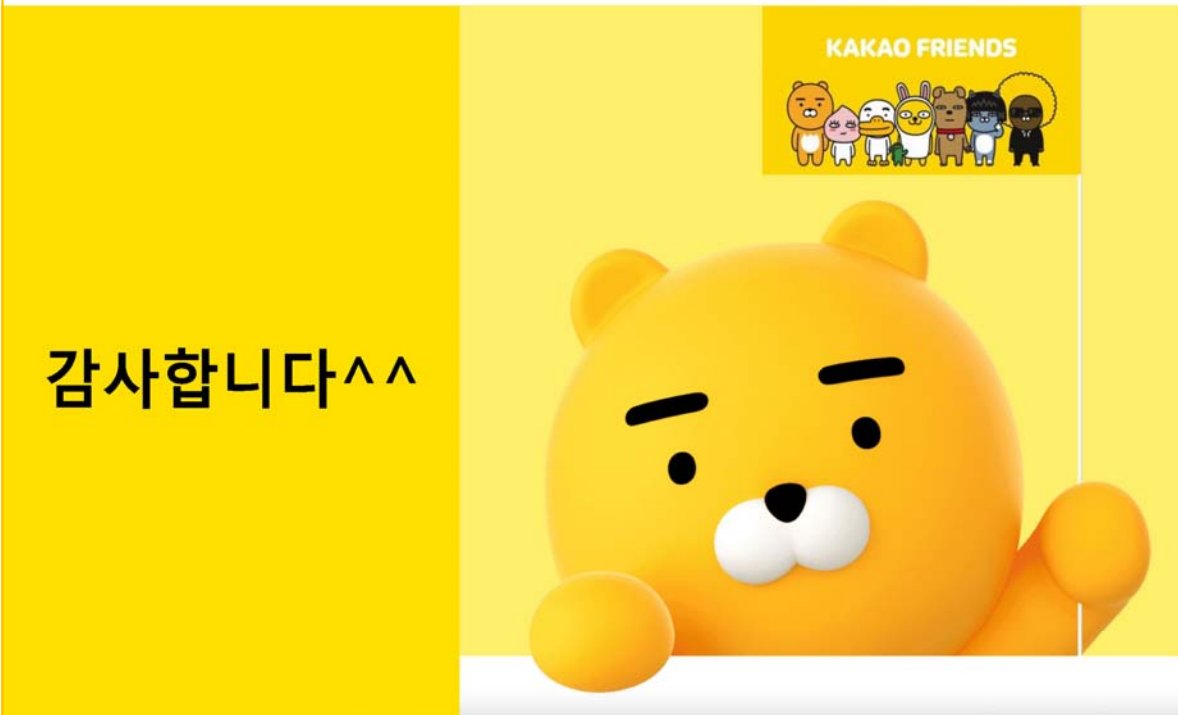
24/7 고객 밀착 케어

다양한 채널 활용

개인 타겟팅된 상품 오퍼링으로 고객 로열티 증대

Segment of One	초저합 콘텐츠 (마케팅, 상담) 초개인화 상품 (대출, 용자 등) 맞춤 가격 설정
데이터 분석	고객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저장소 제거, 360도 개별 고객 관점 파악
데이터 수집	고객 데이터 (나이, 성별, 인구통계 특성 등) 행동, 맥락 데이터 (고객 활동으로 생성) 시장 데이터 그 외 데이터 (지리 공간, 날씨 등)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Analysis, 2020.



세션별 논문발표

세션 I 보험

사회: 허 연 교수 (중앙대학교)

발표자	성명	김창기
	소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논문제목	한글	IFRS 17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 및 보험손익 평가와 시사점
	영문	Assessing Insurance Liabilities and Profits under IFRS 17
공동연구	김창현(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신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IFRS 17 회계기준은 원칙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보험 업계는 IFRS 17 기준의 보험부채와 손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확한 영향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손해보험의 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부채와 보험손익을 평가하고, 산출된 보험손익을 토대로 IFRS 17 기준과 IFRS 4 보험회계 기준의 차이점과 재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경선
	소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
논문제목	한글	2-요인 효용모델에서 예방적 노력과 내생적 저축에 대한 비교정학
	영문	The Comparative Statics of Self-protection with Endogenous Saving in a Two-argument Utility Model
공동연구	홍지민(숭실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This study examines the wealth effects on self-protection against health risk and saving in a two-period model with a two-argument utility of income and health. We provide a set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increasing self-protection as income and health increases, without restricting the sign of third derivatives of the utility function. We also provide sufficient conditions with an additional assumption on the shape of absolute risk aversion and absolute correlation aversion. We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initial income and health on self-protection and saving depend on the decision-maker's attitude towards correlation aversion (loving), a comparison of absolute risk aversion and absolute correlation aversion,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come and substitution effects. We find that self-protection and saving can be either complements or substitutes.</p>	
Memo		

발표자	성명	조경원
	소속	보험개발원 부장, 법학박사
논문제목	한글	고지의무 수동화를 위한 선결 과제의 검토
	영문	A study on the prerequisites for the passive duty of disclosure
공동연구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논문초록 (Abstract)	<p>현행 고지의무제도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알고 싶은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능동적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청약서상에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질문표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는 질문표상의 질문 항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반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1989년), 독일(2007년), 일본(2008년), 중국(2009년), 영국(2012년) 등 대부분의 주요국은 고지의무 수동화로 입법을 통해 전환한 상태이다.</p> <p>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된 각국 보험회사의 질문표를 보면,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알려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문항수가 많고, 질문의 범위가 넓으며, 주관식으로 답해야 하는 양식도 다수 발견된다. 우리나라도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한다면 해외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질문의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수동화로 전환한 나라의 경우, 대부분 표준 질문양식이 없고, 회사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다 보니 질문표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질문표상 질문이 과도하게 많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의 수동화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문표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통해 유효적절한 질문항목을 개발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이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손지훈
	소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영문	Social Security Expansion and Economic Issues in a Heterogeneous Economy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This paper generalizes Gertler's overlapping generations (OLG) model, where each generation is represented by homogeneous agents, and develops it into a heterogeneous agent model. The developed model reflects the agents'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while retaining the tractability and parsimony of Gertler's model. Diversified agents with different attributes such as work probability, mortality, and labor productivity generate heterogeneity in consumption and wealth distribution in a steady-state. This approach also enables analysis of heterogeneous agents' different life-cycle behaviors and meaningful investigation of fiscal and social security policy experiments' effectiveness.</p>	
Memo		

발표자	성명	최창희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농업 선진국 지위 격상이 정책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Impact of the Promotion to a Developed Country Status in the Area of Agriculture on Government-Funded Insurance Programs
공동연구	이승준(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논문초록 (Abstract)	<p>올해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지위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2021.7.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참조). 일각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지위 격상이 상징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위 격상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향후 농업 관련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채택되어 있는 무역 관련 국제협정들(예: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협정, WTO 농업협정, GATT 제16조 등)은 회원국들의 농업 관련 수출 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주요 국제 무역협정을 분석하여 농업 부문 지위 격상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p>	
Memo		

세션 II 리스크 관리

사회: 이경희 교수 (상명대학교)

발표자	성명	강성호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가계부채 보유와 보장보험 가입 간 관계분석
	영문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Debt and Protection-type Insurance Ownership
공동연구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이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조사대상 기준년도: 2016~2018년)를 활용하여 국내 가계의 부채 보유 여부가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기간 부채를 보유한 가계 비율은 평균 36.8%이며, 부채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18.8%, 기타대출(학자금/금융기관일반/신용카드) 12.4%, 전세금·임대보증금대출 11.4% 수준이다. 보장보험 가입률은 75.5%, 연간 납입금액은 415만원 수준이다. 부채 보유가 보장보험 가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패널로짓 분석 결과, 부채보유 가계의 보장보험 가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론 모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장보험이 부채 보유 가계의 재정안정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상호항(부채유형별×연령계층)에 대한 추정 결과 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부채보유 영향이 연령집단 간 달리 나타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55세 초과 중고령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장보험 가입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p>본 고의 분석결과는 부채보유 가계일수록 보장보험 가입 성향이 높아 가계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장보험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장보험이 부양가족 빈곤 예방, 가계 소비의 급격한 하락 방지 등 가계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장(under-insured)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비용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하여 단체보험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부채보유자와 대출금융기관 모두 보장보험의 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무여력이 높지 않아 보장보험 활용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실행과정에서 단체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p>	
Memo		

발표자	성명	박희진
	소속	부산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영문	Pension Risk Taking and Stock Price Crash Risk
공동연구	노정희(국민연금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Using a large sample of U.S firms for the period 1990–2013, we provide strong and robust evidence that pension risk tak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uture stock price crash risk.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pension risk-taking on future crash risk is significantly greater in firms with low funding ratio and high default risks. Overall, we present strong evidence that risk taking in DB pension asset management can be a new additional predictor of future crash risk. Our study makes important contributions in helping stakeholders and shareholders appropriately evaluate firms with DB pension plan, and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who need to protect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nd shareholder wealth.</p>	
Memo		

발표자	성명	정원석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보험설계사 보수구조가 불완전판매에 미친 영향
	영문	Effects of Insurance Agents' Biased Incentive Scheme on Misselling Behavior
공동연구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본 논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수구조가 불완전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생명보험 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높을수록,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판매 시 그리고 보험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른 보험료 환산율(초회보험료 대비 환산초회보험료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보수를 받는다. 분석 결과 보수 지급률이 높은 보장성보험의 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사에게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보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자기이익을 위한 편향된 정보전달 행위가 실제 보험판매에서 존재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갖는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보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p>	
Memo		

발표자	성명	박소정
	소속	서울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실손보험과 병원의 도덕적 해이
	영문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nd Moral Hazard of Hospitals
공동연구	정찬욱(DB손해보험)	
논문초록 (Abstract)	<p>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수요자 측면의 연구는 많으나, 공급자 측면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공급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본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KHP(Korea Health Panel) Data version 1.5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의료이용 차이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의원과 병원 방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공급자 측면의 기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Memo		

세션 III 보험계리

사회: 이항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자	성명	이민하
	소속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제목	한글	
	영문	Insurer's incentive via varying coefficient
공동연구	이항석(성균관대). 하홍준(Saint Josph's Univ.)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사의 투자수익 분배 정책은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투자수익의 분배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분배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공유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특히 이번 연구의 결과로 투자수익 중 보험사의 몫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확인하고, 고유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험사의 공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통계적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의 계수가 다른 변수의 함수라고 가정하는 VCM (varying coefficient model)을 적용하였다. 독립 변수의 계수가 상수가 아닌 무위험 이자율의 함수로 두었을 때, 기존 패널 회귀 모형보다 보험사의 공유 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험사의 협상력 측면에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안재윤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논문제목	한글	신경망 Credibility
	영문	Neural Credibility
공동연구	Rosy Oh(KAIST), Yang Lu(Cocordia Univ), Dan Zhu(Monash Univ), Kyungbae Park(Kangwon National Univ)	
논문초록 (Abstract)	<p>In insurance, the ratemaking process based on the credibility is widely used. In the traditional credibility theory, the premiums are set to be the affine function of the claim history which facilitate the transparency in the ratemaking process. However, the affine restriction on the premiums may lead to inefficiency in the ratemaking process depending on the functional form of the actual forecasting. Here, we propose the concept of neural credibility where the credibility factors are modelled with neural network. This method is interesting in that it allows the intuitive interpretation while as efficient as the forecasting based on the classical neural network methods. Simulation study and real data analysis are accompani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p>	
Memo		

발표자	성명	이항석
	소속	성균관대학교
논문제목	한글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료의 조화
	영문	Capital Regulation and Insurance Guaranty Premium
공동연구	송성주(고려대). 이가은(성균관대 박사과정)	
논문초록 (Abstract)	<p>지급여력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 agency problem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부여되어 기능하고 있다. 최적 자본 규제의 수준을 계약자의 최적 효용에 기반하여 설정해야 하지만, 자본규제의 강화를 감독자가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에 보험사의 파산확률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최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에 인력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의 파산확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시 약정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파산확률이 중요한 예금보험료 산정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리스크관리의 강화로서 예금보험발생의 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환옵션(exchange options)의 일반화 (배리어 수준의 다양화, 점프 모형)를 반영한 옵션 공식을 유도하고 예금보험료의 명시적 공식을 유도한다. 또한, 수치분석을 통하여 리스크 수준별(자산, 부채), 리스크 관리 정도(ALM)에 따라서 예금보험료의 차등화에 대하여 논의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현경
	소속	한국신용정보원
논문제목	한글	보험 승환해지와 일반해지의 특성 비교
	영문	An exploratory comparison study between replacement and common lapse in life and long-term insurance.
공동연구	백 철(한국신용정보원)	
논문초록 (Abstract)	<p>생명보험을 기준으로 매년 보유계약의 8.0%에 달하는 계약이 해지(금융통계월보)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해지, 즉 승환해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승환해지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보험시장 전반의 흐름 파악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경험 데이터를 통해 승환해지와 일반해지의 계약자, 보험종목, 모집채널 등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 업권 간의 승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p> <p>아울러, 금융빅데이터개방시스템(CreDB)을 통한 관련 후속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p>	
Memo		

세션 IV

보험법

사회: 박세민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자	성명	김시홍
	소속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논문제목	한글	빅테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영역의 진출
	영문	Entry into the insurance industry through big tech's financial platform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보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으로 주요국의 빅테크사들은 헬스케어, 종합 자산관리 측면에서 비대면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빅테크들이 GA(독립보험대리점), 디지털 손해보험사, 미니보험사,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등 진입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p> <p>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입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융편의성과 혁신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많다. 빅테크들은 절대 우위에 있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주도권과 데이터 독점력을 기반으로 보험상품의 비교분석, 중개, 모집, 추천, 판매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상품의 번들링 및 언번들링, 제판분리(고객접점 독점), 데이터 개방 등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빅테크들은 사업제휴 및 기업결합 확대를 통하여 비대면 보험 생태계를 독과점 형태로 지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존 보험업권은 플랫폼의 열세로 인하여 이들 빅테크와 제휴 또는 종속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p> <p>이처럼 비대면 보험시장의 진입규제는 완화되고 있으나 공정경쟁을 위한 플랫폼 및 금융AI에 대한 행위규제나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로 인한 불완전판매 규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 배상책임, 무분별한 고객 데이터의 독점 및 오남용(의료, 건강 등 민감정보)에 대한 규제, 보안·인증 규제 등에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불명확하다.</p> <p>빅테크들은 플랫폼 및 데이터의 독점 외에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독자 계좌 보유)에도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기존 보험업권도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 확보, UI·UX 개선을 통한 모바일 플랫폼 주도권 확보(고객접점 확보) 등 생존과 미래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모색들이 필요한 시점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박수영
	소속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한글	인슈어테크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영문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suretech Market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인슈어테크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보험 업무에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기조와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같은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면서 인슈어테크가 보험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험시장 진출을 놓고 물 밑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p> <p>이러한 인슈어테크 시장의 확대과정에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방편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알고리즘담합의 발생,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기업집단규제의 회피 등을 들 수 있고, 시장획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독과점에 대한 판단의 애매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규제의 회피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또한 상품개발, 마케팅, 가입, 계약관리, 비급, 고객센터 등 절차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약관에 대한 명시교부설명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 될 수 있다.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강현구
	소속	법무법인 광장
논문제목	한글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영문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6년부터 국내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총원하는 등 인슈어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p> <p>즉, 국내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bot) 등을 통해 AI 보험설계사의 활용 등은 물론 보험 관련 상담 및 업무 지원·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인증, 보험증권 위조검증 등의 기술을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p> <p>그러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p>	
Memo		



세션 V 연금 & 규제제도

사회: 이태호 박사 (ESG 경제연구소)

발표자	성명	최경진
	소속	주택금융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60대 고령자의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1954년생을 중심으로-
	영문	Analysis of Old-Age Income Security Effectiveness Considering National Pension and Reverse Mortgage of 60s older people Focusing on those born in 1954
공동연구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의 60대(2019년 기준)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소득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가주택 거주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1954년 생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9년 기준 1954년 생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은 77만원, 소득대체율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소득계층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잠재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예상월지급금을 합산하여 추정한 평균 노후소득월액은 110만원으로 예상되는 평균소득대체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60대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노후소득 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저소득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승준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현행 공제보험 관련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문	Policy Issues on the Governance and Operation of Korean Cooperative-Insurers
공동연구	최창희(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다수의 공제보험사업자들이 보험시장에 유사보험을 제공하며 보험회사와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제보험사업자와 관련된 현행(개별법, 관리 기관, 공제보험사업자 등의 목록)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민간 연구기관 및 저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7개 부처가 제정·관리하는 38개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78개 공제조합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련 38개 개별법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정부 부처들은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제조합의 운영(인사 및 예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정부가 사적 기관인 공제조합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며 공제와 보험회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예를 들어 한미·한 EU FTA)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의 공제보험 운영 간섭을 허용하는 개별법을 개정하고 공제보험이 보험업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양기진
	소속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목	한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영문	Some legal issues on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under revised bill of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55)(이하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에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거의 전면개정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빅테크의 참여를 겨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여러 논란을 야기한다. 우선,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일종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외부청산의무를 도입하고 있고, 개정안상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고객에 대해 계좌를 개설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에도 참여를 허용한다. - 발표문에서는 이상의 개정안 내용이 동일(유사)현상-동등(유사)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특별목적국법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제도와 비교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업'을 행하는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동등규제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외부청산 의무가 소비자보호에 최선의 방안인지 등의 쟁점을 검토한다. 	
Memo		

발표자	성명	성승제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연금, 기관투자자, 경제민주적 자본시장들의 법적·제도적 조성
	영문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pension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cono-democratic capital market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학의 구루인 Peter Drucker는 일찍이 연금보험기금자본주의 통찰을 제시 - 「Unseen Revolution」(1976) ○ 이에 깊이 영향받은 Corporation Law의 권위 중 하나인 Harvard Law School 의 Robert A. Clark 교수는 “The Four Stages of Capitalism” (Harvard Law Review, 1981) 발표. ○ 자본주의는 연금보험 전국민 보급·확산으로 경제민주적 제도적 조성에 돌입할 수 있었음 적시하고, 4개의 단계마다 법적·제도적 혁신으로 진화하였음을 지적 ○ 이후 이를 이어받아 Gordon Clark/Tessa Hebb 은 5단계설 제안(2004) ● 한국은 알맞은 자본시장 조성 조건부여를 통하기만 한다면, 자본시장형성조건에 따라 법적·제도적 조성이 미진한 점들을 간단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아니함. ○ 자본주의적 시장조건들의 연금 및 기관투자자 활동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자본시장활동자(연/기금/펀드/기타 사적 또는 공개적 투자조합 등) 조성 - 현재 조건(ex. 국민연금 1국 1개 거대연금체제)들은 ‘시장’ 형성 저해 WallStreetRule의 행사 및 적용 저해 --> 사실상 국민전체라 할, 연·기금 가입자들에게 자본손실이 전가됨 ○ 소위 사회적책임, 스튜어드십코드, ESG 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 자본시장형성이 잘 조건적용되었음에도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contro /monitoring이 미흡한 것을 부분적/국소적까지 말끔히 청소하려는 - 부차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금융의 법적제도적 자본시장적 구비를 저해하는 조건들: 금융은 감독되어야 하나? 산관복합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자의 ‘그림자규제’ 보고서(53쪽, 2019) 에서 사용한 용어 - ‘산’과 ‘관’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매개점을 찾아 결합하며 상호 협진協進하며 共益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시스템이 -口을 주도하는 것인데 - 영미에서도 비효율적 재정활동에 주목하며, 정부 규모가 점증하는 것을 일종의 stylized fact라 보고 이를 설명하는 몇 이론들이 있음(William A. Niskanen 의 가설) - 한국의 그것은 산관복합체 형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서 영미의 개선노력과 정 반대라고 봄 - 본래 IMF는 물론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온 주요한 한국 회사법의 조항들 - 대표적으로 사외이사 등은 미국에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기여와 헌신과 (기 	

	<p>실은 그들 이익 추구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갖은 노력 끝에) 협조로써 자본시장의 장인 거래소를 압박하면서, 채택되어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 또한 자율규제에 기원하고 작동 또한 그러하여야 하는 탓에 ● 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지향할 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이 완비된 자율적이고도 엄격하여 금융/보험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완성된 자본시장이, 처음부터 등장할 수 없음 -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조건은 참여와 진입과 퇴출의 자연발생적이고도 독립적 판단에 기한 참여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며, - 시장 조건을 결정할 자(가격결정자 -price setter)를 두지 말아야 하는데, 법률들이 지향할 바는 참여자 다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의 연/기금/펀드/각종 사적·공개적 투자단체들 수를 증가시킴 - 기타 영역 예컨대 산업분야의 독과점적화 하는 성향은 이미 100여년전 각 선진국들이 경험한 독점자본주의단계로 충분히 입증됨. - 산업분야는 경쟁법의 작동을 통하여 치유하며, - 동시에 금융의 역할로써 오작동을 다른 측면의 치유를 가함 - 결과로써 출현하길 기대하는, 금융(보험 포)의 산업자본 지배는 매우 바람직하며, 금융의 지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방향성으로써 건전한 경제민주주의 조건 형성의 지름길
<p>Memo</p>	



세션 VI

Next Insurance

사회: 이태열 박사 (보험연구원)

발표자	성명	변혜원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보험산업과 ESG
	영문	The Insurance Industry and ESG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 확산과 MZ세대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에게 사회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해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자금중개,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위험관리 기능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험회사에게는 노후소득 보장공백 해소, 기존 소외계층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노동자의 위험보장, 기후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자금공급과 위험관리라는 주된 역할에 ESG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금공급자로서는 ①ESG 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②탄소중립 관련 권고 등을 참고하여 우리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하고, ②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하고,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②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개발·제공하고, ③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정성희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위험의 진화와 보험의 역할
	영문	Enhancing the role of insurance using the evolution of risk as a opportunit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은 기후·사회, 일상 생활, 기업 생산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한 관계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면서, 위험의 진화 속도와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요인 이외에 인간으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위험 발생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재해·모빌리티·사이버에 대한 위험 인식이 증가하고, 일상 생활보장과 건강관리, 기업의 위험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위험 보장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영 과제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보험상품개발 역량 및 위험 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험 수요자 및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 과제로 대재해 위험 관리 및 통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보험 제도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손재희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영문	Digital Environment (in Business) and The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디지털 기술, 소비자 변화,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는 MZ세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면채널을 선호하던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경험이 확대시킴으로써 보험회사에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 디지털 전환은 보험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험업의 가치사슬을 자동화·정교화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디지털화된 보험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① 유연함, ②개인맞춤, ③실시간 제공, ④끊임없는 연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만족스러운 디지털 보험소비를 경험하게 됨. 한편 산업 간 초연결화는 보험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보험시장 내 경쟁구도와 핵심 역량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회사가 디지털 환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함. 또한 신기술 및 데이터를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p>	
Memo		

발표자	성명	김세중
	소속	보험연구원
논문제목	한글	인구구조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
	영문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고연령 인구 확대와 저연령 인구 감소의 양적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새로운 사 고방식의 MZ세대 부각은 소비자 집단의 이원화를 통해 보험시장의 분화를 야기 할 것으로 보임. MZ세대 부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이원화는 소득 및 부의 불균 형 현상에 의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음.</p> <p>보험산업적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경제 저성장에 따른 보험시 장 축소가 예상되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 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의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 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p> <p>MZ세대의 부상은 일상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 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데 있어 사회 안전망이라는 본 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임.</p>	
Memo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4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으로(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보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다른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르며, 편집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1.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⑥ 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연구윤리 준수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④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될 때, 편집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2.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제4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의 건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학회사무국에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종류로는 다음이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 ③ 관련 기록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10조(사후관리대책)

-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도에 4월말 발간되는 『보험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

